

필리핀, 쿠데타 시도 배경과 이에 따른 파장

국별조사실

□ 사건 개요

- 지난 25일, 소장파 장교와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장교들이 무장한채 근무지를 이탈하자 26일 밤, 아로요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를 통하여 본 쿠데타 계획이 누설되었으며, 주동자 체포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난 27일 새벽 296명의 군인들이 마닐라 중심의 주상복합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기습점거, 군인들의 처우개선, 부패한 군부 고위층 처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함.
- 필리핀 정부는 전투부대를 투입, 건물 주변을 포위하고 반란세력과 대치하였으며 사건 발생 19시간만에 정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 됨.

□ 사건의 배경

- 아로요 대통령은 2001년 쿠데타를 통한 군부의 지지로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는 미약한 정통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쿠데타를 우려하며 군부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였음.
- 그러나, 리더십 부재와 경기 침체로 국민 지지도가 하락하자 아로요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에 적극협조하며 국제

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한 정권 안정을 모색함.

- 이러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 유지를 위해 아로요 대통령은 군부에 무리하게 테러단체 진압 작전 등을 지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군부와의 불화설이 나돌았음.
- 그러던 중 소장파 장교들이 군부가 이슬람과격반군에 불법으로 무기를 유출시켰으며, 몇몇 폭탄테러가 군부자작극이라는 주장을 하며 군부 부패 척결, 군인 처우개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본 사건을 일으켰음. 한편 전 대통령 에스트라다의 개입여부는 현재 그 측근 체포를 통해 수사중임.

□ 사건에 따른 파장

- 아로요 대통령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우선은 국내 경기 회복에 전념하여 지지도를 끌어올린 후, 금년 10월 부시 미대통령의 내방에서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불출마 선언을 번복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있었음. 그러나 본 사건을 계기로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더욱 더 불투명해짐.
- 본 사건으로 인해 소문으로만 나돌던 대통령과 군부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치안 불안은 외국인의 투자심리 위축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됨.
 - 2002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동기대비 26.2% 감소한 460억 페소(약 8억 3,000만 달러)로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계속 감소 추세임.
- 본 사건이 주식·외환 등의 금융시장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단 외환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며 페소가치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GDP의 약 70%에 달하는 540억 달러의 정부외채상환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 주식시장은 25일 1283.80에서 28일 1256.76으로 2.1% 하락함. 외환시

장도 소폭 하락에 그쳤으나, 2000년부터 국내·외 경기 불투명으로 폐소가치 하락은 계속되어 2000년 달러당 44.2폐소였던 것이 2002년 달러당 53.2폐소까지 평가절하 되었으며, 7월 29일 현재는 달러당 54.7폐소를 기록함.

- 현재 S&P의 필리핀의 국가신용등급은 BB로 투자적격등급보단 2단계 밑임. S&P의 아시아지역 담당자는 본 쿠데타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냉담했던 점을 지적하며 발생 사실보다는 향후 사건처리 과정을 중시하겠다고 하였음. 또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년 총선까지의 정국을 주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함.

전문연구원 류재욱 (☎3779-6678)

E-mail : jaeukkor@koreaexim.go.kr